

격려사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고 소원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20년에 이르기까지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 여러 이사들과 관련분야 학자 그리고 연구원, 후원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성과에 대해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993년 4월 해인사에서 발족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20년 역사가 말해 주듯이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연구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1996년 세계 최초로 고려대장경 디지털 입력본을 완성한 일과 더불어 고려대장경을 콤팩트디스크(CD)로 제작한 것은 목판본, 활자본에 이은 새로운 문명시대로의 전환이자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알맞은 불교문화 재창출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랭카스터와 버스웰 교수 등 세계의 석학들이 디지털 대장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려대장경연구소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통합대장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개최하였으며 우리의 조상이자 고승대덕께서 일구어 놓은 불교의 문화유산을 이어서 활용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과거 대장경의 선진국이자 문명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조차 열지 못했던 대장경 천년의 축제를 우리 땅과 가람에서 성대하게 열 수 있었던 것은 국난의 시기에 불력(佛力)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문화유산을 소홀히 다루고 계승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내다 버리는 사례도 있었고, 근세에는 일제의 침략과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는 아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민족이 만들고 불교가 지켜온 수많은 문화재가 세계의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문화로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당당히 인정을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 대장경을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고 완성했기에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原型이 모호해진 인터넷 상에서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

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창립 20년이 더욱 더 경사스럽고, 불교계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라 여깁니다. 향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과 후손들의 새로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간 종림스님을 비롯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모든 분들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불교문화 연구와 조사, DB구축 등을 통한 불교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년을 한결같이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해준 모든 분들의 호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3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